

# 韓國에서의 老人問題

高 永 復

(서울대 사회대학 교수)

우리 나라에는 65세 이상의 老人人口는 150萬 이고 60歲 以上の 老人人口는 240萬名으로 集計 되고 있다. 이것은 全體人口의 3.9%~6.2%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平均壽命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老人人口는 해를 거듭함에 따라 急速度로 增加할 것으로 展望된다.

우리 나라의 老人問題는 그 數에 있어서 보다는 質에 있어서의 複合性에 있다. 傳統的으로 내려온 長幼之序가 무너지고 世代的 統合構造가 解體現象을 빚고 있으면서도 再統合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近代化와 더불어 能率的 價値가 증시되면서 世代交替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家族이 個人을 責任지는 形態의 二重性을 보이고 있다. 즉 個人志向의 價値와 共同體志向의 價値가 共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共同體志向의 價値가 커왔다. 老人世代는 過去の 權威를 잃어가고 있고 젊은 世代를 統制할 힘을 상실하고 있다.

이것은 基本的으로 社會構造의 問題와 관련된다. 우리나라는 外形的으로는 個人志向의 價値를 따르면서도 內面的으로는 共同體志向의 價値가 結集되어 있다. 行動은 個人志向의 이고 마음은 共同體志向의 이다. 그러면서도 經濟的인 영역에서는 個人志向性이 壓倒的으로 우세하다. 個人志向性에 익숙하지 못한 老年層은 社會的으로 낙오되고 젊은이들로부터 疎離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老人問題의 特性을 性格지우는 問題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老年層의 實質的인 年齡限界가 不分明 이고 있다. 傳統的으로는 回甲이라는 特定時

期가 있었으나 지금은 停年이라는게 있다. 이것들이 대부분 60歲前後에 걸치고 있는데 社會的으로는 經濟的으로 子女에게 依存하게 되는 時期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職業이나 個人事情에 따라 40代에서 老人取扱받는 사람도 있고 終身 經濟權을 장악하는 사람도 있다.

둘째로 老人이 되어서 子女와 同居하는 層이 있는가 하면 別居하여 獨立世帯를 이루고 있는 사람도 있다. 傳統的 價値는 同居를 권장하나 近代의 價値는 別居形態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家族속에서의 老人의 處遇問題에 혼란을 주고 젊은 層의 老人觀에 대한 分化를 가져온다.

셋째로 老齡인데도 불구하고 經濟活動의 지속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老後生活을 즐기려는 사람도 있다. 대개의 階層的 地位가 낮은 사람은 前者에 속하고 階層的 地位가 높은 사람은 後者に 속한다. 이것은 老齡者의 構造的 不平等을 조성하고 老人層의 集靈의 結束을 바란다

넷째로 老齡者間의 價値觀의 差異가 있다. 傳統的인 三綱五倫을 고집하는 老人이 있는가 하면 民主的으로 開化된 老人도 있다. 이것은 敎育水準 職業 性格 등의 差異에서 오는 것이기는 하나 그 分布의 幅이 넓고 中間의 類型이 설정되지 않아 老人保定立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섯째로 老人世代와 젊은 世代와의 意識의 差異가 있다. 젊은 世代는 世代交替의 變化를 희구하나 老人世代들은 年齡的 權威를 누려려한다. 젊은 世代는 老人들의 無氣力을 맞았고 老人世代는 젊은 世代의 無禮함을 맞는다. 따라서 世代間의 分裂과 對立이 생기고 家庭 職場 社會 生活에서 葛藤을 잉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職業構造를 기준으로 해서 볼때 老人層의 問題는 크게 四分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 즉 農民層 勤勞者層 自營業者層 俸給生活者層이다.

農民으로서의 老人은 農民의 貧困問題와 直結된다. 젊은이들은 農村에 머물러하지 않고 老人 農民들이 農村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도 農業도 近代化되어 가고 있다. 農業技術者가 아닌 老人 農民은 경쟁을 이겨내지 못한다. 子女들은 家族을 계승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近代의 階級秩序가 붕괴되고 老人들은 零細農民으로 남는다.

勤勞者層의 老人은 高齡인때도 就業機會를 찾고 低賃金이라도 일을 해야 한다. 子女들과 함께 벌면서 生活을 해야하고 그러면서도 子女들로부터 經濟的인 無能力으로 困하여 尊敬받지 못한다. 子女들이 社會的으로 進出하면 머뭇받는 경우도 많다.

自營業者層의 老人은 家業을 子女에게 물려주었을 때만이 發言權이 있다. 그러나 職業活動에서 물러났으므로 疎外感이 크다. 社會的인感覺은 예민하나 現實에 따라주지 않음으로써 欲求不滿은 크고 社會的인孤立의 고통을 甘受해야 한다.

俸給生活者層은 比較的인貯蓄이 있는 편이고 經濟的으로 餘裕가 있다. 年金恩澤을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政治的인不滿은 크다 急速한 文化的인發達에 落伍되어 있으면서도 意識만은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老人集團의 先導者들이기도 할 核心的인 成員이 된다.

다른 老齡者들의 共通된 要求가 없는 것은 아니다. 身體的인健康의 限界 經濟的인依存性 對人的인孤立性 社會的인疎外性등은 老人들 모두의 共通된 悲哀와 안타까움이나, 대부분의 老人들은 家庭속에서 尊敬받으면서 權威를 누리고 살아온 先親의 經驗을 알고 있으면서도 간작스러운 狀況變化로 困해 그 터머천이 흔들리게 되어 家庭속에서 子女와 같이 살기도 거부해지고 그렇다고 家族을 박차고 나가 獨自의인 生活을 營爲할 自信도 없다. 社會的으로 老人에게 有利한 福祉的인施設이나 條件이 있는 것도 아니고 一般的인 雰

圍氣는 老人들의 忍耐와 自制를 尊重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나라에서 孝道가 강조되고 있고 그 美風이 사라진 것은 아니나 원래 孝道는 父母의 絕對的인權限과 威信이 確立을 前提로 하여 成立한 禮節인데도 背景的인實權은 상실한 채 名目上의 孝行만 要求하는 모순 때문에 이 美德도 變形되거나 弱화되어 가고 있다. 기껏해야 용돈을 얼마 마련하는 정도의 形式으로 남아 있다.

지금의 老人들은 의지해야할 準據基準이 없다가 남겼다고 자랑할만한 文化的인遺産도 없고 子女에게 全體的으로 依存하기도 어렵게 되었고 그렇다고 빠르게 바뀌어가는 社會를 믿을수도 없다. 自己自身에게 기대기에도 힘에 부린다. 그러기 때문에 머뭇받은 存在로 생각하게 되고 不滿感이 커져 스스로 孤獨의 울타리로 움추러든다.

우리 나라에서는 老人들의 問題를 可及的인家族內에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西歐의 社會福祉制度下에서의 老人들의 쓸쓸한 모습이 결코 理想的인 모델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代案이 없다. 經濟的으로 家族이 하나의 共同體를 이루고 있어야만 家族에서의 老人의 權威가 유지되는 법인데 우리 나라에서 家族은 벌써 經濟的인單位가 되지 못한다. 國家가 老人을 책임지려해도 財政的인事情이 허락치 않는다. 오히려 子女들에게 孝道를 강조하고 老父母를 모시는 責任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家族的인事情은 변해버렸는데도 在來的인禮節을 강요하고 보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같겠인가 염려된다.

거기에서 老人들의 意識도 近代化하고 있다. 合理的이고 科學的인 生活을 하고 싶고 健康한 生活을 누리고 싶고 여러가지 知識도 알아야 하고 趣味를 살리면서 餘生을 즐겁게 보내고 싶다 人間으로서의 뒤떨어지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近代化 내지 經濟成長의 부대효과이기도 하지만 人間欲求의 自然스러운 發動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期待水準의 上昇을 社會가 불러 일으켜 놓고 社會는 機會를 주지 않고 도리어 抑壓하고 있다. 社會全體의 問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오늘의 世代가 앞으로 닥쳐오는 問題이고 새로운 社會統合을 위한 處方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政治적으로 보던 老人層의 壓力集團化가 豫想된다. 老人世代가 政治적으로 단말하던 保守勢力의 溫床이 될 뿐만 아니다 政治적으로 큰 負擔이 된다.

經濟적으로는 老人層이 剩利生活者가 될 수 밖에 없다. 非公式經濟部門에 投資하게 되고 投機에 손댄다. 그리고 經濟活動의 沈滯現象을 가져오기 쉽다.

老人問題의 解決은 ① 世代間의 要求의 균형된 調和속에서 찾아야하고 ② 社會的 理解가 一致되는 方向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③ 道德的인 水準을 넘어서서 制度的인 水準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家族生活에서는 世代間의 새로운 協同體系가 모색되어야 한다. 家族속에서는 원래 男性이 課題의 役割을 여성은 情緒的 役割을 맡아 왔다. 이것을 앞으로는 老世代가 情緒的 役割을 맡고 젊은 世代가 課題的 役割을 맡는 役割分代의 再整備가 있어야 한다. 核家族도 아니고 老人中心의 家族도 아닌 共生家族形態의 確立이 바람직하다.

職場生活에서는 終身의 原理가 導入되어야 한다. 職場이 全 生을 責任져야 한다. 老後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各種 社會保險體系를 開發하

여 從業員이 老後問題에 대해 지정하지 말고 全力을 기울일 수 있는 職場氛圍氣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組織의 새로운 協力體系가 구축되어야 한다.

地域社會의 水準에서는 老人組織의 活性化가 요구되고 있다. 지금 老人亭 老人學校등이 있고 老人會組織이 있으나 보다 積極的인 地域社會 共有의 施設이나 資産이 갖추어져야 한다. 家族이나 職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問題를 地域社會가 해결해 주고 老人들이 自治的으로 스스로의 問題를 해결하는 지혜를 카내야 한다.

政府로서도 할일은 많다. 養老院은 물론이고 老人病院, 老人銀行, 老人職業紹介所, 老人問題 研究所, 老人아파트 老人用奉仕員의 訓練(派出奉仕員, 看護奉仕員, 身邊補助員, 寮內員) 등의 일이 政府事業으로 推進되어야 한다.

끝으로 老人學의 定立이 時急하다. 老人學은 保健學, 人類學, 社會學 등의 綜合的인 應用科學인데 우리 나라에선 아직 이 方面의 研究가 本 軌道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老人學의 志向은 韓國社會의 老人의 位置를 定立하고 老人을 보는 社會的視角을 정리하고 老人을 人間으로서 對하는 合理的 精神을 기르는데 있다. 老人學의 定立없이 老人問題의 해결은 어렵다. 個人 志向의 能率性和 共同體志向의 情緒性을 綜合하여 發展을 저해하지 않고 協同하는 社會를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